주제: IoT 기기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기사 요약: 최근 미국 아칸소 주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살인 사건 수사 증거를 수집하며, 아마존 에코(Amazon Echo) 기록을 입수하려 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미 IoT 온수기의 파일과 관련된 증거를 획득한 상태이다.

한 검사가 밤새 술을 먹고 뜨거운 물이 담긴 온조에서 시ㅔ로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로 집주인인 친구를 기소한 사건인데, 검사 측은 IoT 온수기의 기록을 입수해 이른 아침에 증거를 없애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양의 물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에코와 애플 시리 같은 ‘올웨이즈-온’ 기기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매직 워드를 듣고 반응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캐시에 저장된 검색 엔진 쿼리에 대한 접근은 물론, 주변 모든 대화와 음성을 엿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으면, 이런 질문과 요청에 한계가 없다. 아마존은 유효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법정 명령 없이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너무 지나친 부적절한 요구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지만,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유효하면서도 구속력있는 법정 명령이기에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IoT에 대한 개인의 정보접근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itworld.co.kr/news/103396>